

Publisher :

Jong Sung Kim

Editors :

Ginena Wills, Jennifer Oh

Editorial Board :

김중언, John Nuessle

Caroline Njuki, 장학범

김효식, Ginena Wills

Jennifer Oh

Published by

Hope5L2F Foundation

7-11 South Broadway, Suite 3

White Plains, NY 10601

866-967-5123 (Ph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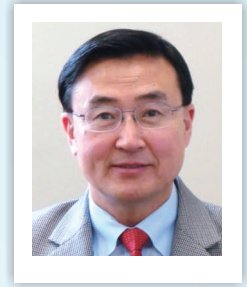
866-267-0788 (Fax)

missionjournal@Hope5L2F.org

www.Hope5L2F.org

Publisher's Note

**“영혼 구원 (Salvation)과
사회의 변화 (Trans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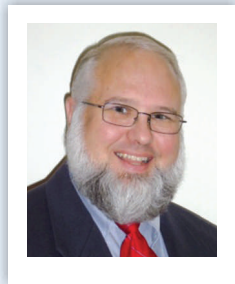
Hope5L2F 재단 대표
김종성 목사

2014년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다시 한 번 체험하는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을 통해 우리들은 모두 세월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지난 4월 Hope5L2F 재단을 시작 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재단이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며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개척해 나갈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기도로 도와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Hope5L2F 재단은, 새롭게 형성되는 선교지의 신앙인들과 신앙의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건강하게 신앙 생활하고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단 안에서, 잘 알려진 선교의 전문가로 존경을 받고있는 David Wu 박사는, “선교를 말하다”라는 인터뷰 중에 선교지의 “경제적 자립” (Economic Sustainability)이라는 사안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역은, 인간의 영혼 구원 (Salvation)과 사회의 변화 (Transformation)에 있는데, 선교 사역의 이 두 가지 내용은 항상 완전히 함께 존재 (in totality) 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마지막 선교저널의 주제는 “선교와 소망(Mission and Hope)”입니다. 선교의 마지막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David Wu 박사의 설명과 같이, 영혼 구원과 사회의 변화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선교 사역의 구체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선교지의 교인과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높아지고,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가 천국화 되는 (Transformation)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소망 (Hope)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이번 호에 담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 18:20).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축복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신앙의 공동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새롭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선교지의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앞날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중요한 선교적 과제입니다. 미주 한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선교가 우리 교회 혼자만의 선교가 아니라 이웃에 있는 교회들과 서로 협력하며 힘을 모아 “함께 하는 선교”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기도하며 상상해 봅니다.



By The Rev. Dr. John Edward Nuesle

Hope: God's Mission,

Summary: A theological statement on Hope as expressed in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and in the Hope5L2F Foundation. Hope is the basis of mission, for we are called to engage in God's Mission together. We all have the equivalent of five loaves and two fish. We all have some resources, of time, talent and treasure. The hope of Christian Mission is found in our faithful response to the daily call of Go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We can, and we must, for we are the hope for all the world, by God's grace.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Mark 6: 37

When do you need hope? I suppose we rarely think of this as a need. Hope sounds so warm and inviting... hope for life, for a good future, for release from the captivity of difficulties, be they physical, spiritual, or mental. Do we need hope to live fully in God's world? If so, where does hope come

from? The huge crowds of people gathered to hear or meet Jesus on the side of the Sea of Galilee that one day came for hope, I think. Seeking, desiring, and anticipating hope for their lives. What they found, or were given by Jesus, was the source of hope within themselves, but not individually. They found hope in communal action.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miracle" of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is found in all four of the Gospels, and is the only such action of Jesus to be so recorded. Were all the Gospel evangelists excited about food? Was a mass picnic on the beach that astounding? Just what is going on here?

The Gospels, the three Synoptic writings and John's Gospel as well, are all collections of theological statements. Everything in the four Gospels is there for a theological purpose, not as a journalistic account of Jesu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Christian faith is founded on theology, and the

Scriptures all witness to this.

That being so, what is the theological meaning or lesson for us in this so well-known Biblical event, as we seek to live out our Christian faith in the world? Hope. Short and simple it is to state that just when you think you have nothing, God will show you that resources abound in our world. The lesson for us is to realize that life is not essentially just about you... or me. Christian faith is always about us! And God has blessed us all, together, corporately in community, with resources beyond our comprehension.

I know that there are many who would say that Jesus miraculously created food in abundance there on the lake shore out of thin air. I, however, would draw your attention to what Jesus said. When the disciples were hopeless in the face of what seemed overwhelming numbers of people to feed, and wanted Jesus to send them all away hungry, he responded saying,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Mark 6:

Our Calling

37). We have the resources already at hand...just like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and very near to us (Mark 1:15, and Matthew 3:2). You are the source of the miracle. Not you individually, but you together.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all. Be the visible witness to the reality of God's Kingdom which is at hand. Your hands.

The miracle of this wonderful story is the generosity of Grace. First and foremost is God's Grace and the realization of that Grace in our collective lives. Our hope is in the vastness of creation with which God has graced us, and in the ability we have to respond to the needs of the world by faith. And remember, it is not just about what YOU think you have, or what any individual possesses, but the collective created assets of all people everywhere.

Nikolai Berdyaev, a Twentieth Century Russian theologian, said, "The question of bread for myself is a material question, but the question of bread for my neighbor is a spiritual

question." YOU, together, give them something to eat. YOU, that is WE, all of us, acting in faithful response to this spiritual question are the hope of the world. Not because we are special individually, but because together we are God's creation and the reality of Grace.

Hope is the foundation of mission and is based upon that truth. We are called to engage in God's Mission, together. We all have the equivalent of five loaves and two fish, and often very much more. We all have resources, of time, talent and treasure. The hope of Christian Mission is found in our faithful response to this daily call of Go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We can, and we must, for we are the hope for all the world, by God's Grace. We must join together in concerted, communal action and together give the world something to eat. When we do, we will continually be fed by the hop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present and realized in and through such missional action.

Questions, for Study and Reflection:

1. What are the Grace-filled resources you have to respond to God's daily call to mission?
2. How have you engaged others in your community to express this hope for God's coming Kingdom through today's missional activity?
3. Who can you "feed" so that they might also in hope and by grace feed others?



Dr. John Nuessle is an Ordained Elde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e has served in a various positions within the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e held the position of an Associate General Secretary before his retirement from the Global Ministries

선교를 위한 묵상



김중언 목사



잊어버리는 삶의 예술

“나는 무얼 잘 잊는다고 소문난 사람이다. 성도들이 종종 “목사님은 잘 잊어으신다면서요?” 묻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당혹스럽다. 나는 대답한다. “아무거나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잊어버리는 게 많을 뿐이지요.”

은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한국 TV 방송사의 초대석에서 인터뷰를 청해왔다. 여러가지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마지막에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 있었다. “목사님, 목회 하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말씀해 주시지요.” 얼른 생각이 나질 않았다. “글쎄요.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어려웠던 일들은 생각 나질 않네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그 질문과 즉흥적으로 나온 나의 대답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다시 생각해 보려 해도 어렵고 힘든 일들은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다.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없었겠는가. 단순히 기억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런 일들을 기억할 수 없으니 결국 나는 참 행복하게 산 사람이다.

은퇴 후 서울에서 지낸 지난 2년 동안 나는 모교인 감리교 신학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상명대학 사진 창작반에 등록해 사진 작가인 김명관 교수에게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인사동에 있는 Gallery La Mer에서 “절제된 풍경”이라는 주제로 다섯 사람이 함께 사진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이는 아름다움이 거만하게 세상에 군림해 횡포한다. 창작 예술은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 표현하는 것”이라는 교수의 말이 내 마음에 남아 떠나지 않았다. 삶의 예술도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눈에 띄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숨어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을 찾아 낼 때 그 기쁨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잊으려고 노력하는데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노력하는 동안 결국 다시 기억되고, 그래서 또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니, 기억하지 않아야 비로소 잊혀진다. 오래 기억되지 않은 일들은 생각하려해도 할 수 없을만큼 내 기억 속에서 멀리 떠나버리고 만다.

어떤 사람은 은혜는 잊고 원망스러운 일만을 기억한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원망스런 일들을 잊고 산다. 받아야 할 돈을 잊지 않는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을 잊는 것을 본다.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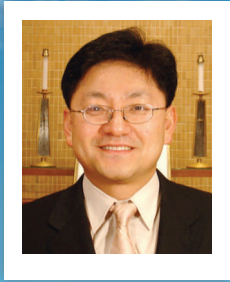
국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일들은 잊고 아름답고 좋은 기억 속에 산다. 무얼 잊는 일은 삶의 예술이다.

우리는 잠들 때 마음에 품는 생각으로 새 날이 시작되는 아침에 깨어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날을 시작한다. 자는 동안 마음에 머무는 기억들이 내 삶을 저어가는 노라는 생각이 든다.

* "잊어버리는 삶의 예술"은 김중언 목사의 "목요칼럼"에 기재된 글입니다.



김중언 목사는 미 연합감리교회 뉴욕 연회 Member로, 후러싱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은퇴. 지난 2년간 한국 감리교 신학 대학에서 교수로 제직 하시고, 현재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강의 하심



장학범 목사

선교 씨앗

우리 교회는 2008년부터 해마다 매년 10-15명씩 멕시코 치아파스지역으로 단기선교를 갑니다. 규모도 크지 않고 많은 선교비가 투입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단기선교는 교회 재정이나 인원의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인 단기선교를 어려워하는 중소형교회의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선교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중의 하나이고, 성도들의 양육과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단기선교를 위한 준비는 우리 교회의 1년 목회계획의 사이클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선교지에 보낼 옷, 신발, 모자 등을 1년내내 수집합니다. 그리고 선교가기 5개월전에 선교주일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2개월전부터는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훈련 및 기도모임을 갖습니다. 멕시코 원주민들에게 제공할 의약품과 안경을 구입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옷가지와 학용품등을 확보합니다. (의약품은 MOM 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시중가격의 1/10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고, 안경은 라이온즈 클럽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듯이, 본 교회에서도 선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골프대회나 바자회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금의 마련뿐 아니라, 교회가 단합하고, 선교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와 교회의 사역이 연결되어,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하는 교회의 선교와 사역으로 정착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는 사역은 의료, 안경, 사진, 선물, 어린이사역, 그리고 전도의 여섯종류입니다. 단기선교를 가는 사람은 10-15명이지만, 각 사역마다 두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멕시코 선교는 늘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지원하지만, 처음 단기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30 %정도는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지상의 명령이기도 하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꾸신 꿈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일을 맛보게 하고, 그 일에 참여할 사람들을 찾는 일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씨를 뿌렸는가를 생각하면, 이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멕시코 선교를 가던 2008년에, 텍사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하신 분은 52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가셨던 Finis Jeffrey 라는 분이었습니다. 제프리 선교사님은 1956년에 저의 선친께서 신

학교 공부를 하던 시기에 만나서, 학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운 신학생을 돕고, 농촌목회에도 도움을 주었던 분이라고 선친을 통해서 들었던 그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장광영 목사의 아들이 뉴저지에서 목회한다는 것을 알고 전화 연락을 한 것입니다.

50년전에 한국으로 선교를 가서 만났던 신학생의 모습에 목회자가 된 그 신학생의 아들이 투영되고, 그 위에 멕시코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선교의 씨뿌림은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레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1985년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진 그 해가 감리교 최초의 한국 선교사 아펜젤라가 복음을 들고 들어온지 100년 되는 해였음을 늘 강조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후 100년후에 복음을 전해 준 땅에 우리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선교신학자 호컨다이크는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흩어져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냐고 물어만 볼 뿐, 얼마나 많이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지는 묻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해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친구 목사와의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나 있어?”

“20명”

“교인수가 적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친구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사역을 하느라 다 바깥에 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한인 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
한국 감리교 신학 대학과
Drew 신학 대학원 졸업 (M. Div. 와 MS).
뉴저지 연회 Igniting Ministry와
몽골 선교 Coordinator.



김진양 박사

애굽의 빵에서 광야의 만나로

만나는 히브리어 “이게 뭐야?”(출 16:15)라는 질문에서 온 말이다. 여기서 “이게 뭐야?”라는 질문은 광야에서 굶주린 히브리인들이 하늘 양식에 대한 감탄의 표현이 아니다.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빵에 비해 형편없는 양식을 두고 “이게 (도대체) 뭐야?”라며 비꼬는 탄식이다.

모세오경에는 만나라는 단어가 8번 나오는데 모두가 광야생활에서 주어진 하늘 양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출 16:31, 33, 35; 민 11:6, 7, 9; 신 8:3, 16).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목격지로 나아가는 임시처로서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다. 여호수아서는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쳐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수 5:12). 광야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것이다. 과연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배워야 하는 하늘의 법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 줄 터이니, 너희는 당일 먹을 양식만 거두어라. 이는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려고 한다”(출 16:4). 애굽의 빵이 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땅의 양식을 일컫는 반면, 만나는 주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겠다”고 하신 것처럼 은혜로 주어진 하늘의 양식이다. 애굽의 빵이 독점 이윤과 부의 축적을 상징한다면 만나는 나눔이 가져오는 풍성함이라는 새로운 경제개념의 본보기다. 이는 “당일 먹을 양식만 거두라”는 말씀에서도 잘 드러난다. 만나를 “오멜”(히브리인의 측정단위)로 측정해 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한다(출 16:18).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출

16:19-20). 소수의 몇몇 사람이 양식을 축적하여 독점하는 애굽사회의 경제개념과 상반된다. 애굽의 피라미드가 상징하듯 오늘날 심각한 빈부격차는 만나를 축적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나아가 애굽의 빵이 바로의 불의한 억압적 경제정책을 지탱하는 매개체라면 만나는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친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려고 한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육일 동안은 너희가 만나를 거두되 안식일은 거두어 들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출 16:25-26). 창세기 2장에 안식일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되지만, 사실 히브리인들은 만나를 통해 안식일 법을 처음으로 실천한다. 안식일 준수는 출애굽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등장할 만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참조, 출 20:8-11, 31:12-17, 23:12, 34:21, 35:2-3). 이는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의 노예사회와 구분되는 가장 대표적 종교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을 기록히



준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광야의 만나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년은 모든 부채를 면제해 주고 모든 노예를 자유케 한다(신 15:1-15). 안식일과 안식년법은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는 애굽의 노예체제에 반대되는 새로운 인권 보호법인 것이다.

만나는 히브리인이 “이게 뭐야?”라는 실망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운 도구였다. 만나를 통해 사람이 땅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신 8:3, 유대인 미드라쉬는 만나가 매일 제공되는 음식이듯이 토라공부도 매일 매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불안, 불의, 분노, 욕망, 이기심이 판을치는 애굽 사회에서 나눔, 섬김, 희망, 사랑, 풍부함이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오멜의 만나를 향아리에 보관하도록 명하신다. 이는 후대로 하여금 애굽의 빵이 아닌 하나님의 만나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출 16:32-33).

얼마전 태국 치앙마이 지역의 한 작은 산마을 학교에 우물을 파주는 선교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이 마을 주민에게 우물이 만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가 하늘의 선물 이듯 우물을 파는 이는 사람이지만 우물의 물은 선물이다. 히브리인들이 만나를 처음 보고 “이게 뭐야?”라고 실망한 것처럼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을 보고 “이게 뭐야?”라고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나의 교훈이 그렇듯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병의 물이 아니라 우물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수다. 만나를 나누듯이 우물의 물을 주민 모두가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 절망적인 현실에서 새로운 희망의 세상으로 전진해 나가길 기원한다. 선교지에 우물을 파주는 일회성 행위를 넘어서 그들에게 우물 파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장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Economic Sustainability, Hope 5L2F 재단의 비전참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비꼬는 물음에 시작한 선교지의 만나가 결국 “(와) 이게 뭐야?”라는 감탄과 놀라움을 경

험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자선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나 식량을 기부하는 선한 행위라고 한다면, 선교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종교적 행위다. 선교는 애굽의 빵에서 광야의 만나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업이다. 세계곳곳에 새롭게 형성되는 선교지가 광야 여정의 나눔을 통해 약속의 땅에서 거두는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김진양 목사는 현재 미 연합감리교회 북 일리노이 연회에서 목회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 (LSTC) 졸업 (Ph. D.)
Wartburg College, Iowa 에서 강의

► Publisher's Note from Page 1

Jesus once said, “for where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Matt 18:20). The implication of this verse is the fact that God’s blessing is always “communal” and not “individualistic.” God’s salvation and blessings cannot be experienced without the context of a community of faith (church). For this reason, it is very crucial for us to be a part of the community of faith. We need a God’s community to encounter God’s blessings.

In my view, this biblical principle also applies to our mission engagement. When we create a community of churches working together for mission efforts, God’s plan for salvation will be manifested in a more powerful and meaningful way. There is a Korean proverb which says “even a thin paper can be carried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f it is done with others.”



Dr. David Wu in his recent interview for “All About Mission” video series pointed out that the issue of “economic sustainability” requires a deeper Theological understanding. He explains that “salvation of one’s soul” and “well-being

of personhood” have to go hand in hand. Thus, our mission engagement has to include both spiritual and physical sides. As we know, this is John Wesley’s understanding of Christian mission and ministry. According to John Wesley, “personal holiness” and “social holiness” cannot be separated and they must go hand in hand.

In this issue of Mission Journal, we are trying to share how the message of Jesus is changing lives of people in mission fields and how hope is being promoted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We do so with our belief that the miracle of the 5 Loaves and 2 Fish is still relevant today as it was in Jesus’ day.

If you would like to receive additional copies of Mission Journal, please contact us at missionjournal@hope5L2F.org
"선교저널" 책자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교회는 missionjournal@hope5L2F.org 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선교지



Photo: Jeff Holt

magnitude of violence and human trafficking in Vietnam, as well as the severe lack of services available for victims.

It is estimated that as many as **400,000 Vietnamese women and children have been trafficked internationally** since 1990 primarily to East Asian, Southeast Asian and European countries. Human traffickers often prey on women with low edu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with many originating from broken or abusive homes. Similarly, the 2013 UNODC "Assessment of the situation of wom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Viet Nam" acknowledged that 58% of women in Viet Nam experience some

HAGAR

the whole journey

Every day, in every city across the globe, women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exual abuse and trafficking. The impact of this abuse is devastating, as women suffer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sometimes life-threatening consequences.



Every positive thing starts with a beautiful soul

Founded by Pierre Tami, a successful Swiss businessman more than twenty years ago, Hagar is a Christian organization that is committed to restoring the lives of the extremely disadvantaged in society, women, mothers and children

whom have be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Hagar draws inspiration from God's love for the forgotten, lost, and broken as seen in the tale of Hagar and Ishmael. Hagar is committed to being part of God's blessing to the Hagers and Ishmaels of this world -- passionately providing a place of refuge, a message of hope and a journey of restoration for each individual. The organization's purpose is singular; it is to do whatever it takes, for as long as it takes, to restore broken lives.

Hagar Vietnam was launched in 2009 in response to the growing

type of emotional, physical or sexual domestic violence during their lifetime. However, only 13% of abused women sought help from the justice system. For those fortunate enough to escape their abuse, there is little infrastructure that exists to support victims in their access to recovery services. Hagar Vietnam is committed to changing this trend.

In the past five years, Hagar Vietnam has provided care to more than a hundred and fifty clients through its Empowering Women for Life program, based in Hanoi. Its holistic, individualized, long-term approach has worked to provide services focusing on



Photo: Jeff Holt

protection, personal well-being, economic empowerment, social capital and societal change. Because Hagar believes that's what it takes to help clients move towards independent livelihood and restore broken lives to wholeness.

Making a difference, one life at a time

Each woman who comes to Hagar has a story to tell. Stories of abuse by the people they love the most. Stories of being tricked and sold by people they trusted. Stories of cold, harsh abandonment, stigma, and discrimination.

Hagar helps each woman weave a different ending - a hopeful ending - to her story.

Anh, now 22, was just 18 years old when she was trafficked to China and forced to be a prostitute. For more than a year, she suffered her "darkest days" full of pain and sorry.

After 13 months of abuse, Anh was able to escape and leave China. But the welcome she received in her home village, a small ethnic minority group in a northern mountainous province, was much cooler than she expected.

Instead of a warm welcome, Anh

found herself the butt of jokes and the object of scorn. She didn't dare go out of her house for fear of what the neighbors would say and do and the probing questions they would ask.

And there were the nightmares. The horrors of her experience kept haunting her every night.

"I tried many ways to come back home but when I was home, it was not home anymore," Anh said.

After two years back in her community, Anh was introduced to Hagar by the Women's Union in her hometown. At first, she refused to work with the Hagar counsellor, she simply wasn't ready to face her deep sorrow. But after two months of support by Hagar, Anh asked for counseling. She decided

to face the traumatic experiences in the past and wanted to turn a new leaf.

It has been a long journey, but Anh is regaining her sense of value and strength. She decided to pursue hair dressing and Hagar cooperated with L' Oreal to provide her with vocational training. She worked very hard and graduated second in her class of 34!

Despite her success, Anh's family unexpectedly encouraged her to return home and marry a young man in her village. The pressure was so strong that Anh felt she had no choice but to follow their wishes. During the time Anh was getting married, her counselor and her case manager worked very closely with her through phone calls and home visits.

Demonstrating a newfound strength and resilience, Anh talked to her parents and her husband and persuaded them to allow her to finish her training in Hanoi. They agreed! In July, 2014, Anh graduated, moved back to her community and started her own beauty salon.

"Thanks to Hagar... I can lead my own life independently and happily," Anh said. "I am looking forward to providing the best hair dressing services to my beloved people, including Hagar staff!"



Photo: Jeff Holt

** Thanks to Ms. Kerry Kelly, Country Director and Ms. Vu Huyen Trang, Development Manager at Hagar, Vietnam for contributing this article.*



장춘식 목사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

한국 감리교회는 내년으로 선교 130주년을 맞이한다. 초창기 선교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회고해 볼 때, 특별히 한국선교를 위해 오병이어를 바친 고사리 같은 손길들을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내한했던 선교사들 가운데는 평생을 한국에 몸 바친 분들도 있지만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이들도 많다. 또한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거나 어린 시절에 질병으로 죽은 아이들도 많다.

일반적으로 미감리교회에서 한국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으로는 가우처와 맥클레이를 꼽는다. 1883년 9월에 대륙횡단 열차에서 보병사 일행과 조우하게 되었던 가우처는 - 존스 선교사는 그것을 시간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역사 간섭으로 보았다 - 그로부터 한국선교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한국을 방문해서 마침내 고종 황제로부터 의료와 교육 분야에 한정해서 선교의 허락을 받아냈다. 가우처는 선교사 파송과 선교부지 매입비용으로 모두 5,000불을 기부했고 여기에 고무된 선교위원회는 선교사역을 위해 8,100불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렇지만 이보다 앞서 <Christian Advocate>의 편집자 버클리는 1883년 1월부터 무려 15회에 걸쳐 신문에 한국선교에 대한 호소를 연재했다. 선교부에는 그 글들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보낸 선교비가 답지했는데 그 가운데는 아이오와의 슬로컴과 익명의 기부자가 각각 1,000불씩 보낸 기부금이 있었고, 캘리포니아에서 9세 소녀가 보낸 9불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선교의 문을 열려고 기도하고 후원했다. 하지만 사실 선교회가 개설하게 되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이 무명의 캘리포니아 소녀와 함께 여러 어린이들이 보낸 오병이어 헌금과 기도였다.



윌리엄 제임스 홀

1893년 이른 봄 평양의 분위기는 서양인에 대해 적대적이고 반기독교적이었다. 의료 선교사로서 평양 선교의 개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선교하기 위해 묵었던 처소는 평방 8피트의 단칸방이었다. 왜 보다 넓은 집을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홀 선교사에게는 그럴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다. 방 한 칸에서 대기실과 진료실과 응접실의 구분도 없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손님을 맞는데

다 또 거기서 먹고 자며 생활했으니 그 고충과 불편함이 오죽했겠는가! 그러나 홀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보다 나은 진료와 교육 선교를 위해 넓은 진료실과 예배와 교육에 종사하는 식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 구했다. 그는 서울에 와서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선교사 자녀들 클래스에서도 평양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홀 선교사의 기도에 첫 번째로 응답한 사람들은 바로 어린이들이었다. 며칠 후 올링거 선교사의 아들 버티는 그가 갖고 있던 1불 모두를 홀에게 가져왔고 이어서 버티의 여동생 윌리가 10센트를 그리고 스크랜톤 목사의 딸 오거스타도 50센트를 “평양에 집을 사세요”라며 내놓았던 것이다. 버티와 윌리 남매는 그 후 편도선염을 앓다 그 해 5월과 6월에 모두 한국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 오병이어의 헌금은 그 다음 해 1,400불이 넘는 기부금이 되어 홀 선교사 부부의 평양선교 본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마치 오병이어 기사가 복음서 각 책에 전승되고 있듯이, 이 이야기도 여러 선교사들의 기록에 자세하게 보존되어 있다.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싸웠던 미감리교회의 초창기 의료와 교육 선교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후원은 언제나 오병이어의 기적과 기도였다. 그러한 기적과 축복이 없었더라면 한국감리교회도 오늘 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제 배풀었거나 받았거나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바친 어린이처럼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해야 할 것이다. 오병이어의 이러한 기적과 축복이 오늘도 세계 선교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길 기도하자.

대한 기독교 감리회 은퇴목사, 배재 대학교 교목 실장으로 사역하며 한국에 학원 목회가 정착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함.
드류 신학 대학원 (석사)와 호주 시드니 대학 (Ph. D) 졸업

Voice of the Next Generation



Jacob Eun

Already More than Enough

New York City is often represented as a city of opportunities where dreams and desires, or so called American dream, can be fulfilled. On the contrary, the reality is that it is the concrete jungle where people have cups of coffee in their hands, cellphones at their ears, bags on their shoulders, and paper works in their arms. Its accelerated pace of life threatens people to be left behind. They need to be smart in order to survive in this competitive world. In desperate search to find means of survival, they are on a pursuit of money, power, education, fame, relationships, and so on.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one who was exceptionally smart in math.

From the story of Jesus feeding five thousand men, not counting the women and children, Jesus asks Philip how to feed approximately 10,000 to 20,000 people to test him. Philip immediately calculates the cost of the project, including market price for food, supply and demand, sale revenues, average household income, number of people waiting to be fed, and so forth. After realistically assessing and carefully

applying mathematical equations, the conclusion of the math genius came to be that the task is economically and logistically impossible.

Many of us can easily identify ourselves with Philip, calculating efficient ways to use our resources productively for the most profitable and beneficial outcomes. Like Philip, we often have no intention of taking action when our mathematical equations and formulas fail to secure the answer. When confronted with an unsolvable situation, we see little of what we have and much of what we don't have. Philip failed because he thought from what he did not have, thus becoming helpless and hopeless.

Often relying too much on our capabilities to calculate scrupulously, assess realistically, and reason logically, we fail to see how God uses our emptiness to perform miracles. In situations of scarcity rather than plenty, we truly experience who God is and what God is capable of as illustrated in the little boy's action of surrendering his meager lunch to Christ. What we

have is already more than enough when it is in the hands of Christ. The key here is not about our abilities to calculate possibilities. It is not about scarcity we lack or plenty we possess. Rather, it is about our willingness to offer what we have to God for the needs that are present.

Our tendency to relate the matter of success or failure to the Gospel has pressured us to concentrate our abilities, possessions, and resources to fear failures and compulsively want successes, whereas the Gospel is all about the unconditional love of God. The story is God's invitation to us to stop our restless chase after what is temporary and to offer what little we have to God, believing that we have more than enough when we are in God's hands. Think about how much of the Good News we have missed so far from our efforts to possess more of bread and fish when we have tens of thousands hungry people waiting for us.

Remember, all that Jesus needed to feed the multitude was the little boy's five loaves and two fish. You already have more than enough. Let us become the instruments and channels of God's grace and love by sharing what we have, even little portions of it. Let us translate our compassionate heart into action. Let us align our hearts and actions to help feed who are hungry spiritually, physically, and emotionally. Let us use our talents and resources for God's ministry to feed the hungry. What are your five loaves and two fish to share?

Jacob Eun is an elementary pastor at Arcola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He is currently pursuing a Master of Divinity degree at Drew Theological School.



By Dr. Caroline W. Njuki

HOPE is High on the African Continent

Africa is a young continent with nearly two thirds of the inhabitants under 24 years of age. Others put the figure at under 18 years of age. This young generation is the opposite of the last generation. They are full of hope, transparency, challenging and ready to experiment with new policies, speaking their minds and are tired of corruption, and mismanagement. They are wired, well connected to the outside world by cell phones and are very cognizant with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Their hope for a better Africa is irrepressible and has resulted in the spread of peace and prosperity as they venture into a new world of modern technology.

Africa is a diverse and large continent and yet one common tie for the waking giant is the HOPE of a people who have gone through so much: from starvation, to conflicts, to having its children taken away in slavery, to the exploitation of its rich resources. The economists say that Africans live on \$1.235 a day despite having some of the richest resources in the world

including cobalt and oil. The 900 million inhabitants sometimes face poverty, poor infra-structure, antiquated health services, harsh climate changes, unemployment, and political unrest, etc. Yet the people's outlook 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s is finally coming slowly to fruiti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suggests that the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will grow an average of 5.8% in 2015. This is hopeful news.

The spread of consumerism, and technology and the mobile revolution has made it easier for Africans outside the continent to send financial remittances to the continent. These remittances now make up a high percentage of the African GNPs. Remittances are resources that Africans working abroad send back to their home counties basically to support family members left behind as well as other businesses. The use of mobile phones even in the remotest rural areas has enabled the population to access funding, carry out business transactions, and enhance an

African economic boom. Such access to information has enabled the African governments to know what people need, and for the populace to know their rights and educate themselves economically as well as politically. Information flow is now freely available even to those who cannot read, as well as to marginalized groups such as women. Rights are no longer sitting in libraries but now people are aware of their rights and beginning to demand them. And as Michelle Obama says: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solve all the world's problems at once but do no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you can have because history has shown us that courage can be contagious and HOPE can take on a life of its own".

This summer President Obama welcomed 500 young African leaders from across Africa for a young leader's summit. Mr. Michael Tchenga one of the participants expressed hope for the continent but also reflected on his experiences in the USA: "When we came here we discovered that the perception people had of Africa was

one of a dark place - a jungle where people are at war and diseases decimate people living in shacks," he says. "We've had to challenge those views. We are educated and we have good stories that aren't being told by the Western media. Through this opportunity, we've been able to showcase those stories and demonstrate that Africa has a voice." HOPE is being able to see that there i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despite all the darkness.

I will share two stories about HOPE and the will to survive on the continent. Think of President Nelson Mandela who spent 27 years in prison. Upon gaining his freedom, he started to negotiate the end of apartheid in South Africa bringing peace to a racially divided country and leadership in the fight for human rights. Through a peaceful resistance and later armed response, Nelson Mandela the leader of the African National Congress, successfully led the transformation of South Africa from a racially divided country to independence. He became the first native African president of South Africa, forgiving the past injustices and forming a multi ethnic government. The story of Nelson Mandela is known to many. He was

born in 1918 into a royal Xhosa tribe, succeeding his father at age 9. Mandela was raised and groomed by a high ranking chief who prepared him for a role of leadership and he eventually attained the best education. Armed with this education, Mandela led the African National Congress in a revolt against the Afrikaner (White South Africans) restrictive laws that were harsh and unjust for black South Africans. At first he used peaceful means but when the blacks lost HOPE, he decided it was time for a more radical approach. When brought before a judge to stand trial for sabotage, treason, and violent conspiracy he admitted to committing some of the charges against him but clarified his actions as a result of his conviction: "I have cherished the idea of a democratic and free society in which all persons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with equal opportunities. It is an ideal for which I HOPE to live for and to achieve. But if need be, it's an ideal for which I'm prepared to die".

HOPE is what makes the present moment less difficult to bear because of the hope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we can bear today's hardship. This kind of hope enabled The Lost Boys of Sudan, 26,000 of them

between the ages of 4 and 18 to escape from Sudan. In the 1980s hundreds of young men (the girls had perished along with their parents or been taken as prisoners) escaped from Sudan when their villages were burned and they walked for months to Ethiopia in the hope of finding refuge. Unfortunately when they arrived, the Ethiopian government was overthrown and the military militia tried to kill them. Again, they had to retrace their footsteps back to Sudan enroute to the Kakuma camp in Ken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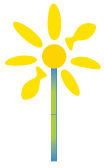
The survivors walked for more than a year from Sudan, back through Sudan and onto Kenya. Only half of the original group made it to the refugee camp in Kakuma in Kenya. The boys had traveled for about one thousand miles to complete the journey hoping to find safety. By this time the older boys had become parents to the younger ones, binding their wounds, sharing dirty water, burying those who did not make it. The older ones carried those who were too weak or exhausted to walk, some just too tired to go on sat down and died of starvation. Finally these boys were resettled in the USA, the spirit of HOPE having sustained them through the most difficult times. They are the hope of tomorrow, upstanding citizens, leaders who are contributing to a better Sudan and world of tomorrow.

There is HOPE for humankind and it is evident in the change that is sweeping through Africa.

An educator and advocate for gender equity for the last 20 years, Dr. Caroline Njuki has worked with the church, NGOs, the UN,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She also served as an Associate General Secretary with the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Making A Difference



HOPE5L2F

Foundation 사업 소개



부악잔 (Buakjan) 마을 초등학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

태국 치앙마이 부악잔 마을 초등학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은 금년 봄부터 준비해 왔고, 지난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Hope5L2F 재단과 아틀란타 한인교회(김정호 담임 목사), 그리고 미 연합 감리교회 태국 선교 사무실(UMC Thailand - 문성철 선교사)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아틀란타 한인 교회의 도움으로 초등학교 안에 우물을 팠습니다. 소중한 물을 학생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속 깊은 산골 마을이어서, 우물을 파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320 미터를 파내려가서야 비로소 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약 1000명이 사는 부악잔 마을의 학생들에게 이제는 큰 어려움 없이 물을 공급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물을 개방해 마을 전체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물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ope5L2F 재단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구체적으로 버섯농장, 양계장, 그리고 어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직업 기술을 가르치며, 더욱이, 치앙마이에서 농대로 유명한 '메조대학 농대생 20여명이 부악잔 프로젝트와 함께 하여, 실질적인 경험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준비하고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Hope5L2F 재단은 앞으로 3년간 부악잔 초등학교의 직업훈련을 재정적으로 돕고, 문성철 선교사님이 계속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 교육을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Mushroom Farm



Chicken Farm & Fish Farm

▼ Students from Agricultural College at Maejo University



Making A Difference



HOPE5L2F

Foundation 사역 소개

Cooperative Work with Hagar International in Vietnam

월남의 Hagar International 재단은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로 어려운 삶을 살고있는 여성들을 구해내어, 그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자립해 건강한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돕고 있는 단체 입니다. Hagar International 재단은 20여년전에 설립이 되어서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에서는 5년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에서 구해낸 여성들에게 약 18개월의 치료와 직업 교육을 시키고, 기업에 취직을 시켜 사회에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신매매로 인해 고통을 받은 약 60명의 젊은 월남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아픔을 치료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교육을 마치면 60-70%의 여성들은 취직도 하고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30-40%의 여성들은 가족으로부터의 압력, 도시 생활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시골 고향으로 돌아 갑니다.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다시 인신매매의 수렁이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2015년부터, Hope5L2F 재단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도시가 아닌 시골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Economic Enterprise Program을 통해 경제적 자립 뿐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갈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계속해서 Hope5L2F 재단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We will continue to update/introduce work of Hope5L2F Foundation.

함께 만들어 가는 "선교저널"

“선교저널”은 미주 한인 교회들의 선교 사역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저널”의 목적은 미주 한인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성서적 이해속에 건강한 선교 사역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선교의 참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가 교회 성장의 도구로서, 개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 하는 일에 기여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을 준비 했습니다.

Q 1.

교회에서 선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선교가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세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Q 2.

선교저널이 개체 교회의 선교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에 응답해 주신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철 목사 (임마누엘 한인연합 감리교회)

- * 담임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신앙고백을 통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영혼구원과 선교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선교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 선교사와 선교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선교에 대한 홍보물은 이미 많습니다. 선교저널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선교소식을 직접 전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진세관 목사 (노크로스 한인교회)

- * 의미 부여: 선교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하는 교육이 필요함.
* 선교의 체험: 교인들이 선교지 방문이나, 선교사들과 만남을 통해 체험할 수 있고, 선교준비에 교인들이 모두 참여는 것도 중요함.
*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 시간적, 물질적 사정이 서로 다른 많은 교인이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멀리 가는 선교여행 뿐 아니라, 거주지 부근에서 하는 선교경험도 중요함
- 다양한 선교현장의 소식을 알 수 있으면 합니다. 선교여행등의 정보도 좋고,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소개해도 좋겠습니다.

박진원 목사 (사바나 한인연합감리교회)

- * 담임목사가 선교에 대한 확신있는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 선교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선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 개체 교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튼튼한 재정과 인원을 확보가 중요합니다.
- 선교와 관련된 지식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와 신학자의 강연, 개체 교회들에게 자극을 줄 다양한 선교활동의 소개를 기대합니다. 개체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선교지를 소개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교회들 사이의 연대를 도모해 주십시오.



Vision

As a Christian organization, the Hope5L2F Foundation (Foundation) will primarily work with Christian faith communities and NGOs to improve human lives and economic condi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major objectives of the Foundation shall be 1) to alleviate poverty among familie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means of microcredit enterprises and economic developments, 2) to create job opportunities for quality of life and economic sustainability through business ventures, 3) to develop systematic ways to educate local persons especially for young women and men for entrepreneurship.